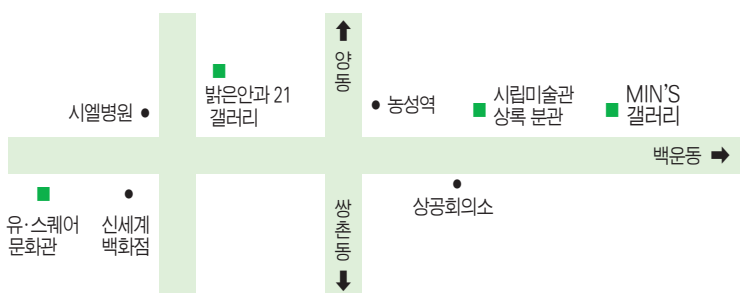


■광천·농성동 갤러리촌



광주시 광천동·농성동 일대가 예술의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 일대에 MIN'S 갤러리,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밝은안과21 갤러리 등이 오픈해 광주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등장했다. 인근에 지난해 옛 전남도지사 관사 부지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도 들어서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최근 광주시 광천동·농성동 일대가 새로운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일 농성동 MIN'S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이 서양화가 최향씨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광천·농성동, 광주 문화명소로 뜬다

MIN'S·밝은안과갤러리, 유·스퀘어문화관 등 속속 오픈

지역작가들에 무료대관·작품 전시…관객들과 문화 소통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 이어 운림동 무등산 자락과 대인시장 일대에도 갤러리가 잇따라 들어서는 등 광주의 문화벨트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공간은 지역작가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전시 공간을 빌려주고 있어,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최근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한림빌딩 1층에 MIN'S 갤러리(대표 민은규)가 오픈했다. 광주MBC에서 20여년 동안 문화 관련 취재 기자로 활동한 민은규씨가 사재를 털어 마련했고, 지역 작가들에게 무료 대관을 줄 계획이다. 전시장은 264㎡ 규모이며 현대식 조명을 갖춘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MIN'S 갤러리는 개관기념전으로 오는 31일까지 화사한 파꽃의 화가 최향씨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전문 큐레이터를 선임해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고, 관람객을 위한 대규모 기획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농성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인근에 문을 연 밝은안과21 갤러리도 지역작가들에게 무료 대관을 해주고 있다. 밝은안과21 병원이 운영하는 이 갤러리는 전시공간이 198㎡로 광주지역 병원 갤러리로는 최대 규모다. 병원 측은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와 동호회, 대학 동아리 발표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15일까지 개관기념전으로 'KIA, V10 기원 사진전'이 마련됐다. 이종범, 최희석, 이용규, 안지홍(이상 타자), 유동훈, 서재운, 윤석민, 양현종(이상 투

수) 등 총 32점으로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와 각기 다른 표정이 살아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광천동에 문을 연 유·스퀘어 문화관과 지난해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도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열고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여향남도의 대표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나의 삶던 고향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봉규, 강연균, 김형신, 문장호, 박행보, 우재길, 이돈홍, 황영성씨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서예, 조각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는 지난 8~10일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제1회 광주국제음악제'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클래식 of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지방청와대'로 불렸던 옛 전남도지사 공간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도 그동안 20여 차례의 전시회와 관람객과의 만남 등의 행사를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대전 대상에 박규숙씨의 '기원'

한국사진작가협 광주시지회

제3회광주사진대전에서 박규숙씨의 '기원'〈사진〉이 대상을 받았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공모에는 모두 500점이 출품돼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20점, 입선 178점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대상작 '기원'은 불교 신자들이 구례 섬진강을 찾아 방생법회하는 모습을 3장으로 나뉘어 촬영한 작품이다.

우수상은 배광열씨의 '장인의 혼'이 수상했으며, 초대작가상엔 조상규씨의 '승무'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1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다음은 특선자 명단 ▲최오성 김용인 김철수 한



상호 문남희 최혜경 김은근 정종복 한용수 변정희 신종천 김용기 최영태 김현정 염동금 염광열 양세열 강성원 송재운.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씨 동물들을 위해…

‘숨’ 2호 제작비 전액 지원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온 소프라노 조수미(47·사진)씨가 이번엔 한국의 동물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를 했다.

비정기 동물보호 전문지 '숨'을 발간하는 출판사 더불어숨은 최근 조수미씨가 '숨' 2호의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숨을 운영하는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명예이사이기도 한 조씨는 '숨'에 실린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친구들과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산다"며 "그런 동그라미를 좀 더 크게 그려서 '내'가 아니라



여수엑스포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픈스튜디오’ 꾸리고… ‘공예난장’ 벌이고…

움직이는 예술의 거리 만든다

8억투입 활성화 나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인 예술의 거리(사진)가 탈바꿈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시비와 국비 8억원을 투입,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특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1차 사업 기간(2009년 8월~2010년 2월)에 진행될 사업은 6개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대인시장 프로젝트와의 차별을 위해 그룹에게 작업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삼호빌딩에 100여평 공간을 마련,

개인 오픈스튜디오, 상설전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며 입주팀은 회화·건축·디자인·공예 4개 분야로 이루어진 국내의 2개팀을 공모를 통해 확정한다.

‘공예난장’은 광주공예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공예학교’, 고미술협회와 함께 하는 ‘고미술강좌’, ‘골품품 강좌’로 구성되며 ‘페인팅 프린지 페스티벌’, ‘아트 페스티벌’, ‘체험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프린지 페스티벌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술 마니아의 세계’는 9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마당극 뽕파전’, ‘거리 인형극’ ‘알콩달콩 음악제’, ‘생생댄스 페



스티벌’ ‘10분 연극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이 준비돼 있다.

또 ‘예술의 거리 개발권 사업’은 문화지도 제작, 스토리 텔링을 통한 콘텐츠 개발, 예술정보 자료관 운영 등으로 꾸며지며 ‘공공미술 및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는 중앙 초등학교와 사거리에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무대를 꾸미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공공미술작

품을 설치한다.

한편 전체 사업을 총괄할 프로그램 매니저로 연극인 박운모씨가 선정됐으며 대위 사업 팀장으로는 김병욱(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 박세희(조선대 문화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성수(광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이명규(광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씨가 활동한다./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사이트 ‘글틴’-광주대

청소년 독서감상문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학사이트 글틴(<http://teen.munjang.or.kr>)과 광주대 문예창작학과가 공동으로 청소년온라인 독서감상문을 공모한다.

김예란 소설집 ‘침이 고인다’, 김종혁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 김경주 시집 ‘기담’ 등 국내 문학도서 6종에 대한 독서감상문을 글틴에 올리면 우수작을 선정해 넷북과 장학금, MP3,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준다. 접수 마감은 25일까지며 당선작은 31일 발표한다.

이와함께 글틴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일 서울 대학교 아코 미술관에서 여름방학 문화교실도 개최한다. 이번 문학교실은 짧은 소설가 김예란 씨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문학퀴즈, 포도드라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문의 02-760-4782-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고전 100선

영문으로 번역

일련의 ‘삼국유사’,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系圖)’, 강항의 ‘간양록(看羊錄)’, 유길준의 ‘서유견문(西游見聞)’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100종이 영문으로 번역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 고전 영문본역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한국정부나 학계가 한국고전을 번역해 해외학계에 보급했지만, 한국학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번역하는 사례가 많아 번역서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해외 학자나 독자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한중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2009.08.24~2010.02.25

교육비·교재비 전액국비 지원

8월 24일

계좌제 1인당 30만원 지원

중앙IT직업전문학교
02-223-0050

명문고교사 방문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 심화반
정속됩니다!

김재규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중은위치(박원가)
의대

· 책물, 또는 사무실 책물(주거시설 200㎡)
· 전대서 도시가스, 냉·난방기 시설전비
· 직영인 임대료·유류금·관리비 없음

면적

18·도	28	38	68
40평	110평	110평	80평

1층·4층 독서실·강의실

임대대상: 동구구청(동부서) 및, 동광병원 앞

중 앙 B/D

☎ 222-4560
☎ 011-666-0229

초·중·고 영어수업도 파랑머리로 합니다!

원어민 | : |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파랑머리 영어수업 100% 원어민 교사를 통해
· 광주·대구·부산·서울 전국 100여 개 지점
· 우수 학생 5000 여명만 합격할 기회를 위해
(일일합격 11:12 12:20 20:40)

파랑머리영어회화
070-7433-0584